

박수국 선생은 왜정시대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독립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고 초지일관한 분이시다. 등잔불 밑에서 아버지로부터 몰래 듣던 독립군 얘기는 선생의 어린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는 애국심을 심어 주었다. 독립군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은 어서 독립군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일본헌병을 혼내줘야겠다고 다짐하곤 하셨다. 함흥사범학교를 졸업한 1941년에 우리고장인 오목국민학교에 부임하여 6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역사시간이었다. 학생들의 책상위에서 모두 일본어로 된 책들이 펴 있었다. "여러분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아이들은 뜻밖의 질문에 멍해하며 이구동성으로 "조선사람 입니다." "그럼 안중근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한 학생이 "이또오를 죽인 의사입니다." 순간 선생의 눈에는 불꽃이 일었다. 아직 조선의 맥박이 뛰고 있구나. 그렇다! 조선인은 죽지 않았다. 저 초롱초롱한 눈들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조선의 기둥들이다. 저 아이들의 가슴속에 조국광복에의 굳은 의지를 심어주자, "여러분은 분명한 조선사람입니다. 조선인은 조선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 말로된 일본 역사책 입니다.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배웁니까?" 선생은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치기 전에 한글을 가르쳐야 겠다고 생각했었다. 칠판에 하얗게 새겨진 ㄱ ㄴ ㄷ ㄹ ㅁ... 아이들과 선생의 눈동자는 빛났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글을 깨우칠 때마다 선생의 눈시울이 더워지곤 하셨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르쳐야 했다. 목숨을 걸고하는 일이었다. 하늘의 도우심으로 아이들은 한글을 깨우칠 수 있게 되었다. 선생이 밤새워 써온 것으로 아이들은 조선의 역사를 배웠다. 그날도 역시 몰래 역사수업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침 교실을 순찰하던 교장선생님이 광경을 보았다. 수업을 당장 중지되었다. 선생은 주재소로 끌려갔다. 주재소 소장이 선생에게 "너는 천황폐하를 모독했다. 뭐 조선인한테 조상이 있다구! 조선인한테 무슨 조상이고 무슨 역사란 말이냐 조선인은 황국의 신민이라는걸 모르나?" "조선인은 조선인이다. 너희 일본놈들이 우리 조선인이 될 수 없듯이 조선인이 황국의 신민이 될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 조선인들에게 황국의 신민이 되기를 강요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선생은 주재소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한참 후에 선생은 학교에 다시 나올수 있게 되었다.

계절이 8번 바뀐 후에 한 학생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의 형이 선생님께 이거 전해 드리래요. 그리고 선생님. 저요 한글로 제 이름 쓸줄 알아요." 선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가슴은 더욱 뜨겁게 타 올랐다. 둘 사이에는 말없이 굳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한글과 역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고 편지 내용은 선생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 후에도 선생은 여러번 주재소에 끌려갔다. 먼저 번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심한 고문을 받으셨지만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또 감격의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소리를 듣고 선생은 그 기쁨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태극기를 그리던중 문이 드르륵 열리고 교장선생님과 일본 순사가 들어왔다. 순사는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 일본이 망했다"하며 칼을 뽑아 들었다. 선생은 눈을 부릅뜨며 "네놈들이 우리 나라를 36년 동안 통째로 집어 삼켰으면 됐지 또 무엇이 남았다고 이러느냐?" 선생은 그리고 있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높은뜻, 굳은 신념, 자랑스런 조국애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은 조국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으셨다. 선생의 시신은 제자들의 손에 의해 화장되었고 지금은 기념비가 세워진 곳에 묻히셨다. 「동포들이요! 이 터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닦읍시다.」라고 쓰여진 충훈탑의 마지막 귀절이 내 가슴속에 사라지지 않는 여운으로 남는다. 충훈탑은 충남 아산군 신창면 오목리 오목 국민학교 교정에 세워져 있다.